



12면

'백년대계 향한 여성의 힘'

# 전주매일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음 12월 14일) 제34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투자협약 체결

2024. 01. 23. 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양지훈 넥스트엔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엔바이오, 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메이신과 투자 및 업무협약이 열렸다.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 및 업무협약을 전라산업 분야인 바이오기업들과 맺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양지훈 넥스트엔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엔바이오, 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메이신과 투자 및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다, 연초에는 바이오 융복합산업 진흥 및 생태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넥스트엔바이오는 전북대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오가노이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오가노이드 뱅크는 환자의 세포를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이곳에 축적된 의료정보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나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투자협약 체결

#### 넥스트엔바이오, 전북대병원 등과 오가노이드뱅크 설립 도내 기업 바이오메이신, 자치도·정읍시 등과 상호 협력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다. 앞으로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의 축적된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엔바이오의 오가노이드 배양 및 제작기술이 더해져 향후 대규모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기업과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탈모 관련 의약품 공동연구 중인 바이오메이신을 비롯한 에이치엘비제약은 전북자치도 및 정읍시와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향후 바이오 분야 정보 교환은 물론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상호 협력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체결한 넥스트엔바이오는 국내에 몇 안되는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으로 지난 세포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의료로 실현하고 있다.

특히, 넥스트엔바이오는 규격화된 오가노이드 배양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규격화된 오가노이드를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넥스트엔바이오는 전북도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바이오메이신은 지난 2021년에 설립된 신설기업이긴 하나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소중함 기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은 물론 제품 상용화를 위해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

사선연구소와 공동연구 중인 탈모 치료제는 국내 제약회사와 협력해 상용화 계획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생산 및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제약은 연매출액 1,000억이 넘는 기업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 8개를 포함해 21개를 소유하고 있는 에이치엘비그룹의 계열사이다.

혈압강화제, 동맥경화용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암, 치매,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 기존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분야를 키워 나갈 때"라며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투자일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인 레드바이오통을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협약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첨단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2023년 전북 찾은 방문객 9640만6000명... 역대 최고

### 평균 체류시간 460분...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웃돌아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로 야간관광산업 육성 기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전북을 찾은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9,6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방문객은 9,64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방문객 9,600만명 유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초마다 3명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것이며, 관광지출액 7,504억원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방문객 수는 8,3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엔 9,600만명대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해 전북 방문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참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별 관광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 체류시간 460분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체류시간인 378분보다 82분 더 머물러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체류시간 상위권(3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객 회복을 위해 체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미식관광, 워케이션, 치유관광 등 지역특화 콘텐츠와 정책 등을 발 빠르게 발굴·추진해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시군별 2,000만명 이상 방문객 순위를 살펴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순이다. \*시군 방문객 현황: 전주시 7,800만명, 군산시 2,500만명, 익산시 2,300만

명, 완주군 2,200만명 특히, 외국인 35만4,000명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이며, 권역별로는 유럽·미국 지역이 2019년 대비 80% 이상 회복률을 보였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50%대의 안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8월 10일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석도페리 연계 등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전북관광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야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로 개발되지 못한 산악지역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휴양·치유·레포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방문객 9,600만명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전북관광의 질적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시장 환경은 고급 소비자가 증가하고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급 소비자가 증가하고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전환되는 관광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과 관광지 개발,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체류관광을 더욱 확산시키고 전북자치도 관광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